

IV. 제국주의 침략과 국민 국가 건설 운동

주제) 나폴레옹 전쟁

학 교	
학 번	
이 름	

1. 나폴레옹 등장 이전의 프랑스의 상황



- 프랑스 혁명으로 ()이(가) 처형된 이후 국정 혼란 가중
- 혁명으로 인한 국정혼란에 따른 국내 정치 혼란



- 대프랑스동맹군의 결성으로 유럽의 주요 국가들이 프랑스를 공격
- 대프랑스 동맹군에 대해서 프랑스가 제대로 대처하지 못하면서 프랑스 내 위기 가중



- 로베스피에르의 공포정치 이후 이를 수습하는 과정에서 5인의 총재정부 수립
- 하지만 5인의 총재정부의 무능으로 프랑스의 정치적 혼란이 수습되지 못함

2. 나폴레옹 등장



- 24세의 포병장교인 나폴레옹이 대프랑스 동맹군을 상대로 툴롱항을 탈환하는 등 승리를 거둠
- 대프랑스동맹군을 상대로 계속된 승리를 거두면서 프랑스 내 나폴레옹의 인기가 상승



- 통령정부의 명령으로 이집트 원정에 참전
- 이집트에서 승리를 거두어 이집트를 점령하는데 성공했으나 영국에게 해전에서 패해 고립



- 이집트에서 몰래 빠져나와 프랑스로 귀국한 나폴레옹은 쿠데타를 통해 총재정부를 무너뜨림
- 통령에 취임한 나폴레옹은 프랑스의 실질적인 권력을 장악한 뒤 각종 개혁 실시

3. 나폴레옹의 황제 즉위



- 나폴레옹은 당시 국민투표를 통해서 황제에 즉위하면서 프랑스의 전권을 장악
- 나폴레옹이 황제로 즉위하자 유럽의 국가들은 이에 반발하여 대프랑스동맹 재결성



- 영국이 프랑스, 스페인 연합 해군을 격파 (트라팔가르 해전)
- 하지만 아우스터리츠 전투에서는 승리를 거두면서 신성로마제국을 해체시킴



- 영국은 프랑스의 다른 나라와의 무역을 막기 위해서 () 실시
- 프랑스는 자신이 점령한 유럽 국가들이 영국과의 무역을 막기 위해 () 실시

4. 나폴레옹의 몰락



- 나폴레옹의 ()을(를) 위반한 ()를 응징하기 위해 대규모 원정 단행
- 이 전쟁에서 막대한 병력 피해를 입고 돌아온 나폴레옹은 대프랑스동맹군에게 패배 ⇒ 엘바섬으로 귀양



- 엘바섬에서 극적으로 탈출한 나폴레옹은 프랑스로 다시 돌아와 황제로 다시 복귀
- 이후 자신의 입지를 다시 다지기 위해 원정을 준비하고 유럽국가들과의 전쟁을 준비함.
- 이후 ()에서 프랑스는 대프랑스동맹군에게 패하면서 나폴레옹이 황제에서 몰려났고 세인트헬레나섬으로 귀양



- 프랑스에서는 루이 18세가 다시 즉위하는 등 부르봉왕조의 전제왕정이 부활
- 유럽 열강들은 나폴레옹 전쟁에 의해 변화된 국가체제와 국경선을 바로잡는다는 명목으로 오스트리아의 수도인 빈에서 회의